

가족상담에 대한 뉴스 기사의 소셜 네트워크 분석*

최 우 정

최 연 실**

(상명대학교 가족복지학과)

본 연구는 빅데이터 분석의 일종인 소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가족상담에 대한 뉴스 기사의 의미 구조 분석과 감성 요인 분석을 실시함으로써 가족상담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여론을 파악해 보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가족상담’이라는 키워드로 검색하여 17곳의 언론사에서 1년간 게재된 뉴스 기사 자료를 조사대상으로 수집하였다. 의미구조 분석을 위한 텍스트 마이닝에서는 빈도분석, 중심성 분석과 CONCOR 분석이, 감성요인 분석을 위한 오피니언 마이닝에서는 요인분석과 이분형 로지스틱 회귀분석이 활용되었다. 연구결과로, 첫째, 가족상담 관련 뉴스 기사에서 ‘상담서비스’, ‘아동’, ‘인식’, ‘문제’ 관련 개념들이 상위 빈도로 나타났으며, 주요 단어들의 연관성에서는 ‘인식’, ‘문제’, ‘아동’, ‘이야기’, ‘개인’, ‘사회’, ‘여성’, ‘부모’라는 단어들이 중심적 위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의 하위집단 구조는 ‘성폭력 및 가정폭력 이슈’, ‘가족원’, ‘인식 및 소요비용’, ‘프로그램 제공 및 운영’, ‘정책 및 제도’, ‘장소 및 매체’, ‘심리적 증상’ 등으로 나타났다. 둘째, 가족상담과 관련된 주요 단어들에서 ‘성폭력 이슈 요인’, ‘인식 및 소요비용 요인’, ‘가족원 요인’, ‘병원 요인’, ‘학교 요인’, ‘자살 요인’, ‘심리적 증상 요인’ 등 7개 요인과 ‘필요’와 ‘어려움’이라는 2개의 감성요인이 추출되었다. 셋째, 감성요인과 관련해서, ‘우울증’, ‘의사’, ‘인식’, ‘치료’, ‘전문가’ 등의 개념들이 가족상담의 긍정에 가장 큰 영향력을 나타냈다. 본 연구는 뉴스 기사에서 보도되고 있는 가족상담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가족상담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여론의 토대가 되는 의미구조와 감성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가족상담 활성화를 모색하는 탐색적이고 기초적인 자료 축적의 의의를 갖는다.

주제어 : 가족상담, 뉴스 기사, 소셜 네트워크 분석, 빅데이터 분석

* 본 논문은 제1저자의 석사학위 논문을 토대로 재구성되었음.

** 교신저자 : 최연실 / 상명대학교 가족복지학과 교수 / (03016) 서울시 종로구 홍지문 2길 20번지

Tel : 02-2287-5317 / E-mail : yschoi@smu.ac.kr

I. 서 론

가족해체로 인해 가족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말미암아 가족상담이나 치료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필요성은 점차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가족문제의 심각성 인지와 해결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국가적 차원의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이슈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2005년 제정된 ‘건강가정기본법’은 건강가정지원센터라는 가족상담 서비스를 위한 공적 전달체계의 기반을 구축하게 하였고, 이를 계기로 가족상담 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크게 증가하게 되었다(조희금, 박미석, 2014). 이러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한 가족상담 서비스의 보급과 정착은 우리 사회에서 가족상담에 대한 인식을 확대하고 가시화시키는 데 기여해 왔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가족상담에 대한 인식 및 여론과 관련되는 기존의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연구자들은 주로 가족상담을 회피하는 주된 이유들에 대해 언급하였고(김성천, 박지영, 2012; 송성자, 1997), 가족상담 서비스의 개선을 위해 선행되어야 할 문제점들을 지적하였다(안중화, 2016). 또한 가족상담 서비스에 대한 요구도 혹은 이용결정 요인을 분석한 선행연구들에서도 가족상담에 대한 인식 요인들을 탐색하는 연구들이 진행되었지만(강기정, 이무영, 강복정, 2011; 김현수, 최연실, 2012; 서지은, 최현미, 2012), 이들 연구들은 가족상담과 관련하여 한정된 사례를 대상으로 결과를 유추한 한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전반적으로 살펴볼 때, 가족상담이나 치료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족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개입방법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왔고, 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족상담을 받는

것을 자연스럽게 여길 정도로 사회적 인식은 개선되었다고 할 것이다(이영분, 김유순, 신영화, 최선령, 최현미, 2015). 하지만, 국내 가족상담에 대한 사회의 전반적인 인식이나 여론을 구체적으로 탐색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가족상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나 여론을 살펴보는 것은 현재 우리 사회에서 전문 분야로서의 가족상담이 위치해 있는 지형을 파악함과 동시에 가족상담 서비스의 안정된 정착과 보급 확대, 그리고 정책 입안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어 기본 바탕을 이루므로, 이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시점에 이르렀다고 보인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사회적 인식이나 여론을 반영하는 언론의 기능(정수정, 김소은, 정익중, 2018)에 초점을 맞추어 가족상담 관련 뉴스 기사를 중심으로 빅데이터 분석의 일종인 소셜 네트워크 분석(social network analysis)을 시도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언론 매체인 뉴스 기사를 대상으로 가족상담에 대한 사회적 인식 및 여론을 알아보고자 하는 근거는 뉴스의 속성과 연관이 있다. 언론은 자체의 프레임으로 특정한 방향으로 기사를 선별하고 강조함으로써 여론을 조성하는 편향성을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분석 대상으로 설정한 뉴스 기사는 언론 매체에서 다루는 다른 글이나 프로그램 등과는 다소의 차별성이 있다. 기본적으로 언론은 정보 제공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뉴스를 통해 특정 이슈에 관련된 다양한 정보와 시각을 전달한다(반현, 최원석, 신성혜, 2004). 일반적으로, 이러한 뉴스는 다양한 접근방식으로 구성되며, 사건 중심 접근(event-centered approach)에서는 주관적 평가나 개입은 최대한 배제된다. 또한 뉴스는 포털 미디어로부터 생산이 되기

때문에 ‘포털 저널리즘(portal journalism)’으로 불리는데(송경재, 2006), 포털 미디어로부터 생산되는 뉴스는 기존의 뉴스와 다르게 구독자들에게 일상생활과 밀접한 커뮤니케이션 환경을 제공하고 있어 그들의 의견이 반영되기 유용하다는 특징이 있다. 즉, 뉴스와 관련해서 언론은 주로 구독자들이 관심 가질 만한 정보를 발견하고 이를 제공하는 기능이 두드러진다고 볼 수 있다(박인영, 2007). 이러한 뉴스는 특정 이슈에 대해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관점을 기술하고 이러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요소들은 감성 속성을 가진 단어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최석재, 이재웅, 권오병, 2016).

뉴스 기사를 토대로 빅데이터 분석을 시도한 연구는 꾸준히 이어져 오고 있다. 그 중 빅데이터 분석 방법으로서 뉴스 기사의 유용성을 언급한 박대민(2013)은 뉴스 기사가 빅데이터 분석 방법을 실시하기에 적합하다고 주장하며, 소셜 네트워크 분석 방법 활용에 의의를 두었다. 우선 빅데이터 분석 측면에서 뉴스 기사는 텍스트나 사진, 영상 등의 디지털 형태로 생산되고 유통되기에 유리한 면이 있고, 비정형데이터이지만 비교적 형식을 갖췄기 때문에, 텍스트 마이닝(text mining)을 통해 정보를 추출하고 요약하는 데 이점이 있음을 언급하였다. 또한 비슷한 주제의 클러스터링(clustering), 뉴스 기사의 시각화, 오피니언 마이닝(opinion mining) 등을 통한 가치 발굴에 용이하다고 하였다.

한편, ‘사회연결망 분석’이라고도 불리는 소셜 네트워크 분석은 연결망 형태의 특징을 도출하고, 관계성으로 체계의 특성을 설명하거나 체계를 구성하는 단위의 행위를 설명하는 것이다(김용학, 김영진, 2016). 기존의 사회와

학 연구가 개인이 속한 특정 집단의 ‘속성’을 중심으로 가설을 세우고 이를 발전시켜왔다면, 소셜 네트워크 분석은 ‘관계’라는 변수를 중심으로 분석된다. 예를 들어, 대학생이라는 집단의 학력, 성별 등 인구사회학적 요인을 통해 해당 집단의 속성을 유추한 것과 달리, 소셜 네트워크 분석에서는 각 개인과 연구자가 분석하고자 하는 대상 간의 상호작용 관계를 알아봄으로써 기존의 연구에서 보지 못했던 측면들을 측정할 수 있다. 또한 자료수집 과정에서 파악된 키워드들의 분류는 빅데이터 분석기술을 활용하여 분석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객관적인 방식으로 연구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논리적 배경에서 본 연구에서는 광범위한 데이터에서 나타나는 의미구조를 파악할 수 있고, 감성 관련 요인들을 다룰 수 있는 소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뉴스 기사에서 나타난 가족상담에 대한 사회적 인식 및 여론에 접근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우선적으로 가족상담 관련 뉴스 기사의 의미구조를 탐색한다. 이는 네트워크상에 수없이 퍼져있는 정보를 분석해 정보들 간의 관련성 및 응집구조를 살펴보는 것으로, 이를 통해 뉴스 기사 내 가족상담과 관련되는 핵심요소들과 연결 관계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뉴스 기사를 통해 나타난 가족상담에 대한 내용을 분석함으로써 감성 관련 요인을 추출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들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본 연구의 작업은 주로 소규모의 개별적 집단을 대상으로 시도되어 온 기존 가족상담에 대한 인식이나 여론에 관련된 연구들을 보완하여, 보다 큰 규모의 데이터 분석을 통해 가족상담서비스 정책의 개선 방향을 설정하고 논의를 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축적하고 제공하는 의의를 지닐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의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가족상담에 대한 뉴스 기사에서 나타나는 주요 개념들은 무엇이며, 이들의 연관성과 의미구조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가족상담에 대한 뉴스 기사에서 나타나는 주요 개념들은 어떠한 요인들로 묶이며, 나타나는 감성 요인들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3. 가족상담에 대한 뉴스 기사의 감성요인들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은 무엇인가?

II. 선행연구 고찰

1. 가족상담 인식 및 여론에 관한 선행연구

가족상담 인식 및 여론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특정 지역, 기관, 대상, 문화적 배경 등에 초점을 맞추어 온 경향이 있다. 먼저, 특정 지역 내에서의 가족상담에 대한 인식 관련 선행연구로는 인천지역 사회복지관을 중심으로 한 가족상담 서비스 활성화 방안 연구와 농촌지역 기혼남녀를 대상으로 한 가족상담 요구 관련 변인 연구가 있다(박미영, 2007; 안연주, 2007). 먼저 인천광역시 사회복지관의 사회복지사들을 대상으로 가족상담서비스 인식을 알아본 박미영(2007)의 연구에서는 노인 문제, 아동·청소년 문제영역에서 가족상담서비스를 매우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족상담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인식과 관련해서, 가족

상담에 대한 전문지식 및 기술에 대한 교육, 슈퍼비전 등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편, 농촌거주 기혼남녀의 상담요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사회인구학적 변인(성별, 연령, 결혼지속기간, 학력, 평균, 가족형태, 농업형태)과 부부 친밀감, 성역할 태도, 부부 의사소통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인 경우와 부부 친밀감이 높을수록, 성역할 태도가 개방적일수록, 상담요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안연주, 2007).

특정기관 내에서의 가족상담서비스 인식 및 여론 관련 선행연구로는 다문화가족상담모델 개발을 위한 탐색적 연구와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가족상담 서비스 강화를 위한 연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위기가족지원 서비스 운영에 대한 실태조사 연구 등(강기정 등, 2011; 정혜정, 2015; 정지영, 박정운, 고선강, 이희운, 2015)이 있다. 강기정 등(2011)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상담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는데, 연구 결과, 상담가로서의 자질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상담 기술 역량, 다문화역량, 상담관련 실무 역량이 나타났다.

다문화가족 결혼이주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김현수, 최연실, 2012)에서는 출신국가별로 상담에 대한 필요성 인식에 어떠한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이러한 인식의 차이를 가져오는 변인은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한국어 능력, 가족관계 만족도, 사회적 지지 등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동남아시아 출신 결혼이주여성들이 가족상담에 대한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였다.

건강가정기본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전국의 아동복지, 여성복지, 성폭력, 가족폭력상담 기관 및 전화상담기관 등을 대상으로 가족상

담서비스 현황을 연구한 김태현, 김순옥, 임춘희와 조은숙(2000)의 연구에서는 상담기관 이용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았다. 이 연구에서는 상담인력 부족 및 부적합한 인력의 활용, 상담체계 구축과 관련된 시설 및 설비 부족이 상담기관 이용 인식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제시되었으며, 상담기관들의 재정자립도 문제, 전화상담기관인 <여성 1366>의 전문영역 구축 문제 등이 논의되었다.

한국 사회에서의 가족상담 인식에 있어 문화적 요인을 중심으로 본 송성자(1997)는 가족상담을 보급시키고 접근성을 높이는 데 있어 문화적 가치관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동양 사회인 한국은 유교의 관계문화에 따른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가족관계를 중시하며 책임, 체면, 의무, 위계질서를 존중하는 가족체계로 발전해왔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우리’, ‘한’, ‘정’ 등은 인간관계를 대표하는 한국 고유의 정서들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한국사회에서 가족상담을 정착시키고 확대해 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가족문화나 정서를 바탕으로 접근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러한 시각은 20여년이 흐른 지금 상당히 변화된 양상이 있지만, 문화적 요인은 가족상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나 여론과 관련해서 현재에도 여전히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상담 관련 선행 연구

최근 모바일 인터넷과 소셜미디어의 확산으로 데이터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민간과 공공의 전 영역에서 빅데이터(big data)를 활용한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빅데이터는 더 나은 의사결정과 시사점 발견, 프로세스 최적화를 위해 사용되는 새로운 형태의 정보처리가 필요한 대용량, 초고속 및 다양성의 특성을 가진 정보자산으로 정의될 만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Gartner, 2018), 이러한 빅데이터의 역할은 분석과 추론의 방향으로 진화하여 새로운 가치창출의 원천요소로 작용하고 있다(정지선, 2011).

국내에서 상담 관련으로 빅데이터 분석 기법을 적용한 연구를 살펴보면, 최근 들어 점진적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추세이다. 조남옥과 조규락(2017)은 2000년부터 2016년까지 한국상담학회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중심으로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진행하였는데, 상담학의 지식구조와 핵심주제어를 도출하고 이러한 핵심주제어를 토대로 주제어 간 관계 및 연도별로 상담학 연구 동향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밝혀냈다. 비슷한 연구주제로 권예진과 차명호(2017) 역시 2000년부터 2016년까지의 한국상담학회 학술지 논문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들의 연구에서는 논문들을 양적 연구, 질적 연구, 혼합연구로 분류하여 결과를 도출하였으며, 상담학의 발전 시기를 분류하여 접근하였다. 두 연구 모두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명사형 키워드를 추출한 후, 키워드 간 관계를 시각화하였고, 중심성 분석을 진행하여 관련 키워드들을 도출하였다.

소셜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하여 웹기반 상담시스템의 연구 동향을 살펴본 이현정과 김장희(2016)의 연구에서는 KISS, DBPIA, RISS를 통해 검색된 웹기반 상담시스템 연구논문 45편을 대상으로 기초사항, 시스템 개발 환경, 상호작용 형태, 성능평가 및 운영상태, 상담대상, 상담 영역, 상담 형태, 심리검사 유형

등의 데이터 수집 분석 틀을 설정하였다. 이들의 연구에서는 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시각화와 중심성 분석이 진행되었고, 키워드 수집 분류 틀에 따라 분석이 진행되었다.

대학생 53명을 대상으로 소셜 네트워크 분석을 진행한 신세인과 이준기(2015)의 연구에서는 설문지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여 진로상담 네트워크의 구조적 분석을 진행하였다. 설문지에는 성별, 학년, 희망진로 등의 인구사회학적 정보와 진로 및 직업에 대하여 상담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개방형 질문을 통해 사회적 관계망을 탐색할 수 있는 문항들로 구성되었는데, 이를 통해 본인의 진로를 터놓고 상담할 수 있는 대상의 성별, 학년을 예측하여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이외에도 오현승과 이동훈(2018)의 논문에서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에 대한 연구 동향을 파악하고자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미국 APA 학회지에 게재된 307편의 논문을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방법을 통해 접근하였다. 그들은 PTSD 관련 연구주제들 간의 유기적이고 관계적인 속성을 살펴보았는데, 중심성 분석 결과, 치료성과, 전투, 알코올, 중퇴자, 전투 노출, 여성베테랑군인, 마음챙김, 정서조절, 성폭행, 인지과정치료 순으로 키워드가 나타났다. 연구자들은 또한 네트워크 커뮤니티 분석을 통해 키워드 간의 군집을 제시하여 거시적인 의미관계를 알아내었으며, 구체적으로 외상 및 대처행동에 관련되는 키워드들과 증상에 대한 인지치료개입 및 성과와 관련되는 키워드들을 분류하여 도출해냈다.

가족상담 분야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연구는 최근에 발표된 구경수와 최연실(2020)의 연구가 있다. 이 연구는 20여년 넘게 발간된 한국가족치료학회의 학술지 논문들에 나타난 가

족치료 연구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주제어들을 대상으로 텍스트 마이닝과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동시에 같이 연구된 주제 중 가장 빈도가 높은 것은 ‘의사소통-자아존중감’이었으며, 중심성 분석 결과, 다른 주제와 가장 연결성이 높은 주제도 ‘의사소통’으로 나타났다. 또한 ‘후기가족치료’, ‘의사소통/ 다양한 가족 이슈’, ‘질적 연구방법론’, ‘보웬모델/부부·가족관계’ 등의 주제들이 지금까지 발표된 가족치료 논문에서 가장 두드러진 4개의 하위집단을 이루는 것으로 밝혀졌다.

요컨대, 지금까지 진행된 선행연구들에서는 가족상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나 여론을 부분적으로 파악하려는 시도도 있었고, 뉴스 기사를 대상으로 빅데이터 분석 방법을 활용한 연구도 꾸준히 진행되어왔지만, 가족상담을 주제로 한 뉴스자료의 빅데이터를 분석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가족상담에 대한 뉴스 기사의 텍스트 마이닝 및 오피니언 마이닝 분석을 통해 우리 사회에서 가족상담에 대한 인식이나 여론에 접근해 보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1. 분석대상 및 자료수집

최근 가족상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나 여론을 알아보기 위해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관련 텍스트들로서 뉴스 기사를 선정하였다. 이를 위해 분석대상으로 ‘가족상담’이라는 키워드로 검색된 웹(web)상의 뉴스 기사를 수집하

고 이 자료들로부터 구조화된 정보를 추출하고자 하였다. 수집되는 뉴스 기사들은 ‘가족상담’이라는 단어가 뉴스 제목 혹은 본문에 포함된 기사이다. 자료 수집에 사용되는 도구로서는 소셜 매트릭스 프로그램인 텍스트톰(TEXTOM: Text to Matrix)을 활용하였다. 텍스트톰은 포털 검색 사이트인 네이버, 다음,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각종 언론사 뉴스 채널 등의 자료를 수집하여 키워드 빈도 순위와 수집된 자료의 동시출현 빈도에 따른 매트릭스 정보를 제공하므로, 네트워크 분석 시 유용한 소프트웨어로 인정 받고 있다(김보경, 김미경, 2015).

수집기간은 2018년 1월부터 12월로 한정하

였으며, 수집 뉴스 채널은 텍스트톰에서 제공되는 뉴스 채널로 국내 주요 언론사를 포함한 다수의 언론사로 채택하였다. 자료수집을 진행했던 뉴스 채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KBS, MBC, SBS, YTN,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경향신문, 한국일보, 연합뉴스, NEWS1, NEWSIS, Oh my news!, 노컷뉴스, 매일경제, 한국경제, 전자신문 등 총 17곳이다. 수집된 뉴스 채널 및 빈도와 텍스트 마이닝 데이터 대상 및 범위는 표 1, 표 2와 같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 수집된 뉴스 기사의 총 개수는 2,910개이다. 이를 채널별로 살펴보면, News1 859개(29.5%), 조선일보 551개(18.9%), 매일경제 306개(10.5%), Oh my News! 294개(10.1%), 한국일보 253개(8.7%),

〈표 1〉 수집 뉴스채널 및 뉴스 기사의 빈도

N=2,910		
	N(뉴스기사 수)	%
NEWS1	859	29.5
조선일보	551	18.9
매일경제	306	10.5
Oh my News!	294	10.1
한국일보	253	8.7
KBS	162	5.6
SBS	158	5.4
YTN	136	4.7
전자신문	101	3.5
NEWSIS	30	1.0
중앙일보	30	1.0
연합뉴스	12	.4
동아일보	6	.2
경향신문	6	.2
한국경제	4	.1
노컷뉴스	1	.0
MBC	1	.0
전체	2,910	100.0

〈표 2〉 텍스트 마이닝 데이터 대상 및 범위

구분	내용
분석 키워드	가족상담
분석 방법	텍스트 마이닝(textmining)
분석 목적	가족상담에 대한 주요 개념 도출을 위한 텍스트 마이닝
데이터 범위	뉴스 채널(KBS, MBC, SBS, YTN,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경향신문, 한국일보, 연합뉴스, NEWS1, NEWSIS, Oh my News!, 노컷뉴스, 매일경제, 한국경제, 전자신문)
데이터 수집 기간	2018년 1월 ~ 2018년 12월
데이터 수집 도구	텍스트톰 (TEXTOM: Text to Matrix)
데이터 정제 방법	동의어, 부사, 불용어 삭제 및 병합
데이터 분석	NetMiner 4.3, NetDraw

KBS 162개(5.6%), SBS 158개(5.4%), YTN 136개(4.7%), 전자신문 101개(3.5%), NEWSIS 30개(1.0%), 중앙일보 30개(1.0%), 연합뉴스 12개(0.4%), 동아일보 6개(0.2%), 한국경제 4개(0.1%), 노컷뉴스 1개(0.0%), MBC 1개(0.0%) 순으로 나타났다. 수집된 데이터는 텍스트에 내장된 형태소 분석모듈인 Espresso K를 활용한 것으로, 이 방법은 고유명사나 복합명사를 파악하는 데 적합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형태소 분석을 통해 1차 정제된 키워드들을 대상으로 동의어, 불용어 등의 삭제 및 병합 과정을 거치는 2차 정제를 실시하였다.

동의어의 경우, 예를 들어 ‘엄마’, ‘아빠’를 각각 ‘아버지’, ‘어머니’로 변경하였고, ‘상담’, ‘상담프로그램’, ‘심리상담서비스’ 등을 ‘상담서비스’로 통합하였다. 불용어의 경우, 예를 들어 ‘곧’, ‘즉’, ‘있’, ‘수’ 등을 삭제하였다. 또한 뉴스 기사 텍스트에 빈번하게 사용되지만 본 연구의 연구문제를 규명함에 있어 불필요한 단어(‘기사’, ‘기자’ 등)는 삭제하였다. 다음으로 본 연구의 핵심어인 ‘가족상담’은 2,910건의 뉴스기사에 모두 포함되며, 소셜 네트워크 분석에 포함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제외하였다.

2. 데이터 코딩 및 표준화

본 연구에서 뉴스 채널을 통해 수집한 자료의 형태는 비정형데이터이다. 따라서, 분석을 위해서는 비정형데이터를 정형데이터로 변환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데이터 수집과정에서 도출된 명사형 키워드를 대상으로 데이터 코딩 및 표준화를 실시하였다. 특히 오피니언 마이닝을 진행하기에 앞서 감성 단어들을 따로 분류하는 데이터 코딩 작

업이 필요하기에 텍스트에서 분류된 감성 단어들을 따로 분리하여 각기 데이터 코딩을 실시하였다.

코딩 및 표준화 과정에서 독립변수로 활용될 텍스트 내 언급 키워드의 경우 해당 텍스트 내에 상위 빈도 109개의 단어가 존재할 시 ‘1’, 존재하지 않는 경우 ‘0’으로 데이터를 변환하였으며, 마찬가지로 감성 단어도 해당 텍스트 내에 존재할 경우 ‘1’, 존재하지 않는 경우 ‘0’으로 데이터 변환 작업을 실시하였다. 가족상담과 관련 주요 단어는 감성 단어와 분리하여 코딩이 진행되었는데, 이는 가족상담에 대한 감성이 구분되어 나타나기 때문에 분리하여 변환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박상훈, 2018). 또한 1과 0으로 데이터를 변환하는 절차는 빅데이터 연구 특성상 동시출현 매트릭스의 형태로 형성된 데이터를 토대로 분석을 진행하므로, 해당 데이터들을 1과 0으로 변환하는 작업은 필수적이다(김용학, 김영진, 2016). 가족상담 관련 감성 단어는 ‘필요’(667회), ‘어려움’(475회), ‘걱정’(328회), ‘도움’(321회), ‘해결’(312회), ‘예방’(242회), ‘해소’(224회), ‘관심’(219회), ‘악화’(215회), ‘새로움’(198회), ‘부담’(171회) 등 총 11개의 키워드로 분류되었다.

3. 분석방법

본 연구의 자료분석은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목적에 맞는 네트워크 분석 및 통계 분석을 실시하기 위해 NetMiner 4.3, NetDraw와 SPSS 23.0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텍스트 마이닝과 오피니언 마이닝 분석과정으로 진행하였다. 소셜 네트워크 분석의 데이터 수집 분석 방법 중 하나인 텍스트 마이닝은

인간의 언어로 쓰인 비정형 텍스트에서 자연어처리기술을 이용하여 유용한 정보를 추출하거나, 연계성을 파악, 분류 혹은 군집화 요약 등 빅데이터의 숨겨진 의미 있는 정보를 발견하는 분석방법이다(안석모, 2014). 본 연구의 분석과정에서는 빈도분석, 중심성분석, CONCOR 분석이 이 작업에 해당된다.

한편, 오피니언 마이닝은 비정형 데이터인 텍스트에서 작성한 사람의 감성을 추출해 내는 방법이며, 해당 텍스트가 어떠한 감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이 가능하다(홍두표 등, 2017). 감성분석(sentiment analysis)과 혼용되어 사용되는 오피니언 마이닝은 특정 키워드에 대한 사람들의 의견이 긍정인지, 부정인지 패턴을 이용해 객관적인 정보로 바꾸는 기술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 대상에 대한 의견을 극성으로 정의하여 긍정, 부정으로 분류하기 때문에 문장의 어순 및 단어 의미에 따라 정확도가 좌우되며, 정확히 분석하기 위해서는 많은 정보의 수집 및 분석이 필요하다(윤한중, 2016). 본 연구의 분석과정에서는 탐색적 요인분석, 이분형 로지스틱 회귀분석(binary logistic regression model)이 이 작업에 해당된다.

텍스트 마이닝, 오피니언 마이닝을 적용한 본 연구의 분석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집한 뉴스 기사들을 통해 가족상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나 여론과 관련되는 주요 단어들을 파악하기 위해 키워드 빈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2,910개의 기사 원문에 상위로 나타나는 키워드 수별로 빈도수를 파악하여 단어를 추출하였다. 소셜 네트워크 분석에 사용될 단어의 수에는 절대적인 기준은 없으나, 모든 단어를 네트워크 분석에 사용할 경우 노드(node)의 개수가 너무 많아 분석 프로그램으로 시각

화하여 표현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분석 단어의 수는 연구자의 주관 하에 적절한 수준에서 결정된다(김준현, 2015). 본 연구에서는 네트워크 분석을 진행함에 있어 120개 이하의 단어가 원활하게 돌아가기에 감성 단어 11개와 주요 단어 109개를 합쳐 단어 수를 총 120개의 단어로 한정하였고, 분석도구는 텍스트 톰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둘째, 수집된 자료의 상위 키워드 순위를 바탕으로 나타난 주요 단어들의 연관성 파악을 위해 키워드들 간의 연결정도를 파악하는 연결중심성(degree centrality) 분석과 중요한 키워드에 관계하고 있는 정도를 파악하는 위세 중심성(eigenvector centrality) 분석, 키워드를 중개하는 정도를 파악하는 매개중심성(betweenness centrality) 분석을 실시하였다. 중심성 분석을 실시하기에 앞서 상위 빈도 단어를 기준으로 동시출현 매트릭스(co-occurrence matrix)를 생성하였는데, 동시출현 매트릭스는 키워드 간 동시출현 빈도를 피어슨 상관계수로 정규화한 행렬로서 빅데이터 분석을 진행하기 위한 과정에 포함된다(김용학, 김영진, 2016). 분석도구는 NetMiner 4.3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셋째, 복잡한 네트워크 집단 내 숨겨진 상위 집단들의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CONCOR 분석을 실시하였다. CONCOR 분석은 NetDraw 프로그램을 통해 진행하며, 네트워크를 시각화 해주는 프로그램이다. 분석을 진행하기 위해 생성한 동시출현 매트릭스를 가지고 유사한 키워드들 간의 관계특성을 시각화한 네트워크를 생성하였다.

넷째, 수집된 키워드들 간에 상관관계가 높은 키워드, 즉 동일 속성의 요인들을 선별하기 위해 SPSS 23.0의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은 가족상담에 대한

감성 정보를 추출하기 위한 과정으로, 본 연구에서 수집된 데이터의 양이 많아 기존 데이터를 가지고 회귀분석을 진행하기에는 통계적 유의성에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분석방법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활용하였다(박상훈, 2018). 탐색적 요인분석의 추출방법은 주성분분석으로 총 표본이 분산 중 대부분을 설명하는 몇 개의 주요인을 추출하는 데 의의가 있다(이득환, 강형구, 김수현, 2013). 배리맥스 요인 회전방법을 선택하여 나온 결과 값은 유의수준 내에서 KMO(Kaiser-Mayer-Olkin)의 표본적합도 수준으로 검증하고, 이를 통하여 잠재변수를 탐색하였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오피니언 마이닝 연구에 대한 기존 선행연구들(박상훈, 2018; 송태민, 송주영, 2015; 이득환 등, 2013)을 참고로 하여, 추출된 결과의 요인적재량 값이 0.4 이하인 키워드들을 제거하여 변수 설명력이 유의한 키워드들을 판별하였다.

다섯째, ‘가족상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나 여론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파악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으로 판별된 키워드 군집의 감성 정보를 활용해 이분형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종속변수는 가족상담에 대한 사회적 인식 요인으로서 ‘긍정’과 ‘부정’의 감성 요인 범주로 분류하였다. 종속변수로 활용될 감성 요인은 요인분석의 결과 중 회귀계수 값으로 나온 긍정 인식과 부정 인식 두 가지 요인 점수 값을 서로 비교하여, 긍정 인식의 회귀계수 값이 높을 경우 1, 부정 인식의 회귀계수 값이 높을 경우 0으로 표준화하여 사용하였다. 이와 같은 절차의 기준은 뉴스데이터의 감성 점수를 계산하여 1과 0으로 분류한 박선주(2017)의 분석 기준을 토대로 하였다. 독립변수는 요인분석을 통해 최종적으

로 추출된 요인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IV. 연구결과

1. 가족상담 관련 뉴스 기사의 의미구조

1) 가족상담 관련 뉴스 기사에서 도출되는 주요 단어

2018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가족상담 관련 뉴스 기사에 나타난 주요 단어들의 빈도수를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가족상담 관련 기사에서 추출된 총 단어는 41,132개이며, 이 중에서 상위 빈도의 단어들을 중심으로 살펴볼 때, 가장 많은 빈도수를 차지한 단어는 ‘상담서비스’(1,441회)로 나타났다. 실제 나타난 주요 단어들 중에 ‘상담서비스’ 외에도, 이와 관련하여 ‘진행’(616회), ‘운영’(613회), ‘제공’(597회), ‘프로그램’(441회), ‘심리상담센터’(292회) 등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자주 등장하는 단어는 ‘아동’(1,254회)이고, 이외에도 ‘부모’(622회), ‘어머니’(600회), ‘대상’(422회), ‘남편’(395회), ‘아버지’(389회), ‘아들’(307회), ‘딸’(204회), ‘아내’(179회), ‘부부’(163회) 등 가족상담을 받는 대상과 관련된 단어들이 포함됨을 알 수 있다. 세 번째로, ‘인식’(1,246회)이 많은 빈도수를 차지하였다. ‘인식’이라는 단어에는 ‘이야기’(858회), ‘마음’(604회), ‘시간’(463회), ‘돈’(316회), ‘고민’(258회), ‘관계’(253회), ‘시선’(242회), ‘인터뷰’(222회), ‘감정’(214회), ‘보호’(206회), ‘힘’(205회)과 같은 단어들이 연관되어 있는데, 이는 내담자가 가족상담을 고려하게 될 때 개인 내적 경험뿐만 아니라 경제적 요인, 물리적 요인, 주변 인식들이 관련됨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외에도 ‘문제’(1,061회),

〈표 3〉 주요 단어 빈도 순위

순위	단어	빈도	순위	단어	빈도	순위	단어	빈도
1	상담서비스	1,441	38	삶	368	75	사고	211
2	아동	1,254	39	서울	358	76	아픔	210
3	인식	1,246	40	친구	349	77	기관	209
4	지원	1,075	41	건강	334	78	보호	206
5	개인	1,075	42	병원	326	79	힘	205
6	문제	1,061	43	법	319	80	딸	204
7	피해자	876	44	돈	316	81	안전	203
8	여성	860	45	신고	314	82	변화	201
9	이야기	858	46	아들	307	83	범죄	201
10	사회	843	47	노력	305	84	대학	200
11	한국	645	48	지역	293	85	방문	199
12	부모	622	49	심리상담센터	292	86	검사	198
13	진행	616	50	성희롱	288	87	고통	197
14	운영	613	51	제도	279	88	문화	194
15	청소년	610	52	경험	268	89	기억	192
16	마음	604	53	자녀	264	90	심리	190
17	어머니	600	54	전문가	263	91	방송	185
18	제공	597	55	방법	261	92	남성	183
19	성폭력	572	56	정책	260	93	증상	182
20	환자	529	57	고민	258	94	아내	179
21	상황	521	58	관계	253	95	인터넷	177
22	피해	517	59	이용	248	96	사진	174
23	교수	516	60	성범죄	245	97	의사	173
24	학생	506	61	시선	242	98	결혼	168
25	직장	489	62	가정	235	99	대책	165
26	학교	469	63	생활	230	100	자살	164
27	교육	468	64	전화	228	101	부부	163
28	시간	463	65	입양	224	102	가정폭력	162
29	프로그램	441	66	인터뷰	222	103	중독	161
30	정부	438	67	정보	221	104	스트레스	160
31	여성가족부	432	68	가해자	219	105	불안	159
32	대상	422	69	개선	218	106	고객	157
33	집	417	70	장애인	216	107	인정	148
34	사건	406	71	사례	215	108	방안	145
35	남편	395	72	감정	214	109	노인	143
36	아버지	389	73	우울증	213			
37	치료	379	74	국가	212			

‘피해자’(876회), ‘여성’(860회), ‘사회’(843회), ‘성폭력’(572회), ‘상황’(521회), ‘피해’(517회), ‘사건’(406회), ‘신고’(314회), ‘성희롱’(288회), ‘범죄’(201회), ‘가정폭력’(162회) 등의 단어가 주요 단어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가족상담과 관련한 사회적 이슈로 성폭력 및 가정폭력과 그로 인한 피해가 다수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정부’(438회), ‘여성가족부’(432회), ‘법’(319회), ‘제도’(279회), ‘정책’(260회), ‘개선’(218회), ‘국가’(212회), ‘대책’(165회) 등 정부의 가족상담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법적 제도 마련과 노력을 알 수 있는 주요 단어들이 포함되었다.

2) 가족상담 관련 뉴스 기사에서 도출되는 주요 단어들의 연관성

본 연구에서는 가족상담과 관련된 뉴스 기사의 원문에 나타난 주요 단어 109개(표 3 참조)를 대상으로 중심성 분석을 진행하였다. 중심성 분석에서는 연결중심성, 위세중심성, 매개중심성을 살펴보았는데, 각각의 중심성이

높은 단어들을 상위 10위까지 정리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먼저, 연결중심성의 연결 정도(degree)는 한 노드가 연결되어 있는 이웃 노드 수(링크 수)를 의미한다(송태민, 송주영, 2015). 즉, 임의의 노드가 다른 노드들과 관계를 얼마나 맺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가족상담과 관련하여 나타난 주요 단어들의 연결중심성 분석 결과, ‘인식’, ‘아동’, ‘문제’, ‘이야기’, ‘개인’ 순으로 위세중심성 값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가족상담과 연관된 뉴스 기사에서 해당 단어들이 가족상담 관련 기사에서 나타나는 주요 단어들을 가장 많이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동’, ‘개인’, ‘여성’, ‘피해자’, ‘부모’ 등 상담 대상과 연관된 단어들, 그리고 ‘문제’, ‘이야기’, ‘사회’ 등 사회 문제와 연관된 단어들도 연결중심성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중요한 노드들과 관계하고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위세중심성을 살펴보면, ‘인식’, ‘문제’, ‘아동’, ‘이야기’, ‘개인’ 순으로 위세중심성 값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인식’, ‘문제’, ‘아동’,

〈표 4〉 주요 단어의 연결중심성, 위세중심성, 매개중심성

순위	연결중심성	위세중심성	매개중심성
1	인식(.50)	인식(.36)	인식 외 89개(.43)
2	아동(.44)	문제(.31)	성폭력, 가해자, 인터넷(.34)
3	문제(.43)	아동(.29)	성희롱(.32)
4	이야기(.36)	이야기(.28)	스트레스(.27)
5	개인(.34)	개인(.24)	청소년, 남편, 기관, 고통, 아내, 결혼(.27)
6	사회(.28)	사회(.20)	우울증(.26)
7	여성(.27)	여성(.19)	환자(.24)
8	피해자(.23)	부모(.17)	장애인(.15)
9	부모(.21)	어머니(.16)	성범죄(.10)
10	상담서비스(.21)	상황(.16)	중독(.06)

‘이야기’, ‘개인’이라는 단어가 가족상담 관련 뉴스에서 영향력 높은 단어들과 연결되어 있는 정도를 보여준다. 즉 뉴스 기사에서 가족상담을 언급할 때 이 단어들이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는 뜻이다. 또한 연결중심성의 결과 값과 달리, ‘어머니’, ‘상황’이라는 단어가 높은 순위에 위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를 통해 가족상담과 관련하여 ‘어머니’라는 주체와 ‘상황’이라는 요소가 가족상담에서 영향력 있는 변인임을 알 수 있다.

서로 연결되어 있는 노드들 간에서 중간에 매개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매개중심성의 경우, ‘인식’을 포함하여 90개의 단어들이 비슷한 수치를 나타냈다. 매개중심성의 분석 결과에서는 다수의 여러 주요 단어들이 동일한 수치로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연결중심성에서 높은 수치를 나타낸 주요 단어들이 매개중심성에서도 높은 수치로 나타났다. 이는 뉴스 기사에서 인식과 대상, 사회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루면서도 가족상담과 연관되는 다른 여러

주요 단어들이 이러한 인식과 대상, 사회문제를 연결 짓는 개념임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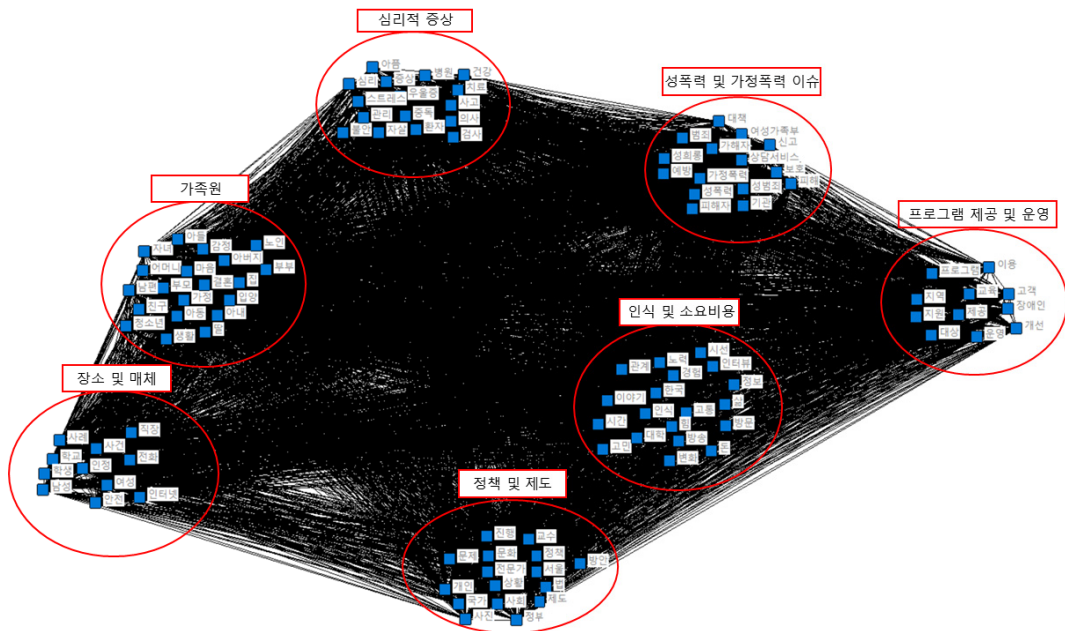
앞서 세 가지 측면에서 도출된 각각의 키워드 중심성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하여 중심성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을 때, 연결중심성과 위계중심성, 그리고 매개중심성에서 공통적으로 ‘인식’, ‘아동’, ‘문제’, ‘이야기’, ‘개인’, ‘사회’, ‘여성’, ‘부모’와 같은 단어들이 높게 나타나 해당 단어들이 가족상담 관련 뉴스 기사에서 중요하게 언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가족상담 관련 뉴스 기사에서 도출되는 주요 단어들의 하위 집단

상관관계가 수렴할 때까지 반복 실행하여 유사성 집단을 찾아내는 방법인 CONCOR 분석은 복잡하게 얽힌 네트워크에서 블록을 찾아 주는 대표적인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도출된 주요 단어들 중에 유사한 단어들 간의 군집 형성과 데이터의 시각화를 위해

〈표 5〉 가족상담 관련 주요 단어들의 하위 집단

집단명	핵심단어
성폭력 및 가정폭력 이슈	성폭력, 성희롱, 성범죄, 범죄, 가정폭력, 피해자, 가해자, 신고, 피해, 보호, 예방, 상담서비스, 기관, 여성가족부, 대책
가족원	부모, 자녀, 부부, 어머니, 아버지, 아들, 딸, 남편, 아내, 아동, 청소년, 노인, 친구, 가정, 집, 결혼, 생활, 입양, 감정, 마음
인식 및 소요비용	인식, 노력, 힘, 시간, 인터뷰, 돈, 이야기, 시선, 정보, 관계, 경험, 고통, 삶, 방문, 한국, 방송, 변화, 대학, 고민
프로그램 제공 및 운영	프로그램, 제공, 운영, 지원, 이용, 개선, 지역, 고객, 장애인, 교육, 대상
정책 및 제도	국가, 정부, 정책, 제도, 법, 사회, 문제, 교수, 전문가, 개인, 서울, 진행, 사진, 문화, 방안, 상황
장소 및 매체	사례, 학교, 직장, 전화, 인터넷, 학생, 남성, 여성, 인정, 안전, 사고
심리적 증상	심리, 우울증, 스트레스, 불안, 중독, 아픔, 증상, 병원, 환자, 치료, 건강, 사고, 의사, 검사



[그림 1] CONCOR 분석 결과

CONCOR 분석을 실시하였다.

CONCOR 분석 결과, 총 7개의 주요 단어들의 하위 집단이 형성되었다. 형성된 하위집단의 명칭은 네트워크상에서 근접하게 위치한 단어들을 토대로 명명되었으며, ‘성폭력 및 가정폭력 이슈’, ‘가족원’, ‘인식 및 소요비용’, ‘프로그램 제공 및 운영’, ‘정책 및 제도’, ‘장소 및 매체’, ‘심리적 증상’으로 구분하였다(표 5와 그림 1 참조).

우선, ‘성폭력 및 가정폭력 이슈’로 명명된 집단에는 주로 성폭력, 가정폭력과 연관되는 ‘성희롱’, ‘피해’, ‘피해자’, ‘가해자’, ‘범죄’, ‘신고’ 등의 단어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상담 서비스’, ‘기관’, ‘예방’, ‘보호’ 등 상담기관과 관련된 단어들이 나타났다. 특히 ‘여성가족부’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이는 여성가족부의 주요업무로서 성폭력·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로, ‘가족원’으로 명명된 집단에는 가족원을 지칭하는 단어들이 상당수 나타났다. ‘부모’와 ‘부부’ 외에 ‘어머니’, ‘아버지’, ‘남편’, ‘아내’라는 단어가 포함되었으며, ‘자녀’ 외에 ‘아들’, ‘딸’, ‘아동’, ‘청소년’ 등이 나타났다. 이외에 ‘노인’과 ‘친구’도 포함되었다. 세 번째로, ‘인식 및 소요비용’이라 명명된 집단에는 상담에서 필요로 하거나 상담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것들과 관련된 단어들이 주를 이루었다. 먼저 ‘인식’, ‘시선’, ‘경험’, ‘정보’, ‘이야기’, ‘방송’, ‘인터뷰’, ‘관계’ 등 상담을 받았거나 상담을 고려하는 이들의 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포함되었으며, ‘시간’, ‘돈’, ‘노력’, ‘힘’ 등 상담 시 필요로 하는 것으로 보이는 단어들이 나타났다. 네 번째로, ‘프로그램 제공 및 운영’으로 명명된 집단에는 ‘제공’, ‘운영’, ‘이용’, ‘지원’ 등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된 단어들과 ‘개선’ 및 ‘교육’ 등 교

육적인 성격을 반영하는 단어들이 나타났다. 다섯 번째로, ‘정책 및 제도’로 명명된 집단에는 ‘국가’, ‘정부’, ‘정책’, ‘제도’, ‘법’ 등의 단어들이 많이 나타났고, 이러한 정책 및 제도를 만드는 데 도움을 주는 이들로 ‘전문가’, ‘교수’라는 단어가 포함되었다. 여섯 번째로, ‘장소 및 매체’로 명명된 집단에는 상담 신청의 직·간접적 원인이 되는 장소 혹은 경로와 관련된 ‘학교’, ‘직장’, ‘전화’, ‘인터넷’ 등의 단어가 포함되었다. 마지막으로, ‘심리적 증상’이라 명명한 집단에는 주로 ‘스트레스’, ‘우울증’, ‘불안’, ‘아픔’, ‘중독’ 등의 심리적 증상과 관련된 단어들이 많이 나타났으며, 이와 연관하여 ‘치료’, ‘의사’, ‘검사’, ‘환자’, ‘병원’ 등의 단어가 포함되었다.

2. 가족상담 관련 뉴스 기사에서 도출된 단어들의 요인 분석

1) 탐색적 요인분석

측정된 값이 얼마나 타당한지를 알아보는 요인분석은 여러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상관이 높은 변인들을 묶어서 몇 개의 요인으로 규명하고 그 요인의 의미를 부여하는 통계분석 방법으로, 측정도구의 타당성을

파악하기 위해 사용되며, 소셜 빅데이터 분석에서 수많은 변수들을 줄이기 위해서도 사용된다. 본 연구에서 적용한 탐색적 요인분석의 추출 방법은 주성분 분석이며, 추출된 각 요인에 포함된 정보량이 최소한 원래 변수에 담겨진 정보량보다 많아야 요인분석이 의미를 가지므로, 고유 값이 1이상인 요인들의 수만큼 요인을 추출하는 방식을 택하였다(이득환 등, 2013). 본 연구에서는 배리맥스의 요인회전 방법을 택하였는데, KMO(Kaiser-Meyer-Olkin)의 표본적합도는 유의수준($p < .01$) 내에서 0.84으로 적합하였다. 해당 요인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을 경우, 신뢰계수(Cronbach α) 값은 .74로 변수들의 신뢰도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6회에 걸친 회전된 성분행렬의 요인분석 결과, ‘성폭력 이슈’ 요인(피해자, 성폭력, 가해자, 피해, 범죄, 성희롱, 신고, 여성가족부, 보호), ‘인식 및 소요비용’ 요인(노력, 인식, 힘, 시간, 인터뷰, 돈), ‘병원’ 요인(환자, 치료, 병원, 의사, 증상), ‘가족원’ 요인(자녀, 부모, 부부), ‘학교’ 요인(학생, 학교, 대학), ‘위기’ 요인(자살, 전화, 전문가), ‘심리적 증상’ 요인(우울증, 스트레스)으로 명명된 7개의 요인들이 도출되었다(표 6 참조).

〈표 6〉 가족상담 관련 주요 단어 요인분석 결과

변수	성분						
	1	2	3	4	5	6	7
피해자	.82	.05	.09	.01	-.03	.08	-.08
성폭력	.78	.07	-.06	-.15	.01	-.02	-.01
가해자	.76	.01	.00	.06	-.00	.12	-.06
피해	.69	.09	.04	.02	.01	.14	-.10
범죄	.64	.01	.00	.08	-.02	.05	-.10

〈표 6〉 가족상담 관련 주요 단어 요인분석 결과

(계속)

변수	성분						
	1	2	3	4	5	6	7
성희롱	.63	.02	-.08	-.20	.11	-.04	.09
신고	.58	-.07	.05	.01	-.00	.37	-.11
여성가족부	.56	-.16	-.14	-.11	.10	-.14	.09
보호	.52	.03	-.07	.12	-.02	-.10	.09
노력	.06	.62	-.01	.00	.01	-.11	.15
인식	.04	.62	.13	.34	.08	.03	.08
힘	.02	.58	.06	.07	.14	.04	.06
시간	-.05	.57	.06	.14	.15	.01	.20
인터뷰	.05	.56	.02	-.04	.00	.07	-.07
돈	-.06	.50	.05	.20	-.03	.14	-.19
환자	-.15	.03	.72	-.07	-.09	-.05	.04
치료	-.01	-.01	.71	.03	.03	-.01	.26
병원	-.09	.06	.68	.08	.03	.04	.04
의사	.12	.18	.56	.05	-.01	.12	-.15
증상	-.06	.02	.54	-.01	-.03	-.03	.42
자녀	-.02	.08	.00	.81	.12	.04	.02
부모	-.07	.16	.04	.72	.16	.05	.02
부부	.05	.16	.01	.66	-.10	-.01	.11
학생	.00	.10	-.00	.00	.77	.05	.05
학교	.04	.06	-.03	.18	.73	-.03	.01
대학	.04	.10	-.01	-.01	.65	.04	-.07
자살	-.08	-.01	-.02	-.00	.04	.71	.29
전화	.09	.09	-.03	.11	-.05	.66	-.01
전문가	.10	.05	.08	-.03	.07	.55	.06
우울증	-.04	.02	.14	.11	.02	.15	.69
스트레스	-.05	.16	.09	.04	-.04	.11	.67

요인추출방법: 주성분분석

회전방법: Kaiser 정규화가 있는 배리맥스

표준형성 적절성의 Kaiser-Meyer-Olkin: .84, $\chi^2=18419.23$, $p=.000$

2) 감성 요인 분석

본 연구에서는 텍스트툼(Tetxtom)을 통해 가족상담 관련 뉴스 기사에서 언급된 상위 빈도의 감성 단어들을 도출하였는데, 이들은 총 11개(필요, 도움, 해결, 예방, 관심, 새로움, 해소, 악화, 어려움, 걱정, 부담)의 키워드로 분류되었다. 이와 같은 11개 키워드에 대해 그 의미를 파악하여 오피니언 마이닝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요인분석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이득환 등, 2013). 요인분석을 실시하기 위해 본 연구의 종속변수에 해당되는 가족상담 관련 감성 단어들은 정형화 데이터로 코드화하여 사용하였으며, 2,910개의 텍스트 내에서 감성 단어들이 있는 경우는 '1', 없는 경우는 '0'으로 데이터 변환 작업을 실시하였다. 고정된 요인수를 2로 놓고 분석한 결과 요인 1(필요, 도움, 해결, 관심)과 요인 2(어려움, 걱정, 새로움, 부담)의 2개 요인으로 결정되었으며, 요인에 포함되지 않은 '예방', '해소', '악화'는 요인적재량 값이 0.4 이하를 나타내어서 제외되

었다.

요인 1과 요인 2로 축약된 요인들은 그 의미를 파악하여 요인 1(필요, 도움, 해결, 관심)의 경우 '긍정' 요인으로 분류하였고, 요인 2(어려움, 걱정, 새로움, 부담)는 '부정' 요인으로 분류하였다. 이러한 과정은 축약된 요인 내 변수들의 의미를 파악 후 주제 분석하여 요인명을 정의하는 송태민과 송주영(2015)의 연구를 토대로 진행되었다. 이는 분석 대상의 속성에 따라 감성의 분류가 바뀔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박선주, 2017). 가족상담 관련 감성 요인을 분석한 결과는 표 7과 같으며, 유의수준($p < .01$) 내에서 KMO (Kaiser-Meyer-Olkin)의 표본적합도는 0.71으로 적합하였다.

3. 가족상담 관련 뉴스 기사의 감성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이분형 로지스틱 회귀분석은 독립변수들이 양적 변수를 가지고 종속변수가 2개의 범주(0,

〈표 7〉 가족상담 관련 감성단어들의 요인분석 결과

요인	변수	성분	
		1	2
긍정	필요	.71	.03
	도움	.66	.05
	해결	.59	.12
	관심	.52	.08
부정	어려움	.12	.66
	걱정	.11	.66
	새로움	.08	.62
	부담	-0.00	.57

요인추출방법: 주성분분석

회전방법: Kaiser 정규화가 있는 배리맥스

표준형성 적절성의 Kaiser-Mayer-Olkin: .71, $\chi^2=1386.04$, $p=.000$

1)를 가지는 회귀모형의 분석을 의미한다.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다.

본 연구에서는 감성 요인들(긍정, 부정)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상담 관련 변수가 ‘긍정’ 인식에 가까운지 ‘부정’ 인식에 가까운지 파악하기 위하여, 축약된 요인들(긍정, 부정)을 토대로 이분형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을 실시하기 전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을 진단한 결과, 모든 VIF(Variance Inflation Factor) 값이 1~2로 나와 각 독립변수들 간의 상관관계가 높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분석결과, ‘성폭력 이슈’ 요인에서 가족상담 결정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변수는 ‘성폭력’(B=-.34, $p<.05$), ‘가해자’(B=.47, $p<.01$), ‘보호’(B=.42, $p<.01$), ‘피해’(B=.39, $p<.01$)로 나타났다. 영향력을 미치는 변수들 중 ‘성폭력’을 제외한 모든 변수들이 가족상담의 결정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성폭력’이라는 단어만 가족상담의 부정적 인식에 관련되고, 나머지 단어들은 거의 모두 가족상담의 긍정적 인식과 관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병원’ 요인에서는 가족상담의 긍정적 인식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변수가 ‘의사’(B=.77, $p<.001$), ‘치료’(B=.56, $p<.001$), ‘증상’(B=.34, $p<.05$)으로 나타났고, ‘가족원’ 요인에서는 가족상담의 긍정적 인식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변수가 ‘부모’(B=.33, $p<.01$), ‘자녀’(B=.17, $p<.05$)로 나타났다. 또한, ‘학교’ 요인에서는 가족상담의 긍정적 인식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변인이 ‘학생’(B=.42, $p<.01$), ‘학교’(B=.30, $p<.05$), ‘위기’ 요인에서는 가족상담의 긍정적 인식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변수가 ‘전문가’(B=.54, $p<.001$), ‘전화’(B=.23, $p<.05$)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심

리적 증상’ 요인에서는 가족상담의 긍정적 인식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변수가 ‘우울증’(B=.82, $p<.001$), ‘스트레스’(B=.39, $p<.01$)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정리하면, 표 8과 같다. 적합성을 검증하기 위해 적합도 통계량(goodness of fit statistic)을 살펴본 결과, 카이제곱(χ^2) 값이 348.48, 유의수준은 .000($p<.001$)을 나타냈다. Hosmer와 Lemshow 검정 결과, 카이제곱(χ^2) 값은 8.85, 유의수준은 $p=.36(p>.05)$ 로 예측모형과 실제모형에 차이가 있다는 가설을 기각하게 되므로, 해당 분석모형은 예측력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국내 뉴스 기사들을 통해 수집된 소셜 빅데이터를 텍스트 마이닝과 오피니언 마이닝의 기법을 적용하여 의미구조와 감성요인을 분석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가족상담 인식 및 여론을 파악해 보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가족상담의 활성화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의미를 두었으며, 가족상담 서비스의 방향 모색을 위한 다각적 정보 및 현장 적용 관련 기초자료의 축적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들을 중심으로 결론 및 논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상담 관련 뉴스 기사에서 추출된 총 단어는 41,132개로, ‘상담서비스’, ‘아동’, ‘인식’, ‘문제’ 관련 키워드들이 가장 빈도가 높다. 특히 가장 많이 등장한 ‘상담서비스’와 더불어 ‘진행’, ‘운영’, ‘제공’, ‘프로그램’, ‘심리상담센터’ 등의 단어 빈도가 높게 나타나,

〈표 8〉 이분형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변수		B	S.E.	Exp(B)
성폭력 이슈	피해자	.07	.15	1.07
	성폭력	-.34*	.16	.71
	가해자	.47**	.17	1.60
	피해	.39**	.13	1.47
	범죄	.16	.13	1.17
	성희롱	-.12	.18	.89
	신고	-.14	.14	.87
	여성가족부	.01	.12	1.01
	보호	.42**	.12	1.53
인식 및 소요비용	노력	.51***	.11	1.66
	인식	.74***	.09	2.09
	힘	.37**	.14	1.45
	시간	.19*	.11	1.22
	인터뷰	.07	.15	1.07
	돈	.30*	.14	1.35
병원	환자	-.11	.15	.90
	치료	.56***	.13	1.75
	병원	-.00	.13	1.00
	의사	.77***	.13	2.15
	증상	.34*	.18	1.40
상담대상	자녀	.17*	.10	1.18
	부모	.33**	.10	1.39
	부부	.25	.12	1.28
학교	학생	.42**	.13	1.53
	학교	.30*	.12	1.34
	대학	-.01	.15	.99
위기	자살	.20	.17	1.22
	전화	.23*	.11	1.25
	전문가	.54***	.10	1.72
심리적 증상	우울증	.82***	.18	2.27
	스트레스	.39**	.14	1.48

* $p < .05$ ** $p < .01$ *** $p < .001$

실제 가족상담을 제공하는 기관의 관련성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아동’ 외에도 ‘부모’, ‘어머니’, ‘대상’, ‘남편’, ‘아버지’, ‘아들’, ‘딸’, ‘아내’, ‘부부’ 등 가족상담을 받게 될 때 주체가 되는 대상과 관련된 단어들의 빈도 출현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인식’도 상당히 높은 빈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뉴스 기사에서 가족상담을 인지하거나 접근하는 것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문제’도 상당히 빈도 수준이 높은 편인데, 이는 마찬가지로 출현 빈도가 높은 ‘피해자’, ‘여성’, ‘사회’, ‘성폭력’, ‘상황’, ‘피해’, ‘사건’, ‘신고’, ‘성희롱’, ‘범죄’, ‘가정폭력’ 등과 연관해 볼 때, 가족상담이 이러한 부정적인 문제들을 다루게 됨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가족상담 관련 뉴스 기사에서는 ‘인식’, ‘아동’, ‘문제’, ‘이야기’, ‘개인’, ‘사회’, ‘여성’, ‘부모’라는 단어들이 연결에서 중심적 위치를 차지한다. ‘인식’이 모든 중심성 분석에서 수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현재 우리 사회에서 가족상담이라는 서비스가 알려지고 정착하는 과정(이영분 등, 2015)에서 이러한 ‘인식’이 중요함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아동’이나 ‘개인’, ‘여성’, ‘부모’는 가족상담의 치료단위인 가족에 포함되는 대상들로서 개인을 둘러싼 관계의 망, 즉 가족관계가 그 치료단위가 되는 가족상담(전영주 등, 2016)의 성격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가족상담은 ‘문제’를 다루는 과정에서 ‘이야기’를 펼치게 되고, 가족문제는 ‘사회’와의 연관성도 높으므로 이러한 단어들이 중심적 위치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가족상담 관련 뉴스 기사에서 빈도가 높게

나타나는 단어들은 ‘성폭력 및 가정폭력 이슈’, ‘가족원’, ‘인식 및 소요비용’, ‘프로그램 제공 및 운영’, ‘정책 및 제도’, ‘장소 및 매체’, ‘심리적 증상’ 등 7개의 하위집단으로 구분된다. 특히 ‘가족원’ 집단과 ‘인식 및 소요비용’ 집단에 가장 많은 주요 단어들이 포함되어었는데, ‘가족원’ 집단에서는 많은 단어들이 부모, 자녀, 부부를 지칭하는 단어들로 이 단어들은 뉴스 기사 내용에서 가족상담의 주요 대상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실제로 가족상담 이용 현황에서 상담을 받는 비율이 높은 것은 부모·자녀 문제와 부부 문제(한국건강가정진흥원, 2018)라는 것과도 맥이 통하는 결과이다. 한편, 많은 주요 단어들을 포함하는 ‘인식 및 소요비용’ 집단이 의미하는 바는 대다수 뉴스 기사들에서 가족상담의 고려요소와 실제 상담과정에서 요구되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가족상담을 회피하는 주된 원인에 가족문제의 고착화로 인한 체념, 상담에 대한 낮은 동기, 타인의 시선 혹은 체면을 중시하는 문제, 상담비용에 대한 부담감, 내방 시간을 내기 어려움 등과 같은 선행연구(김성천, 박지영, 2012; 송성자, 1997; 안중화, 2016)의 결과들과 연결된다. 이로 미루어 볼 때, 가족상담에 대한 인식 및 소요비용 요소에 집중하여 대처와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가족상담 관련 뉴스 기사에서 도출된 단어들은 ‘성폭력 이슈’ 요인(피해자, 성폭력, 가해자, 피해, 범죄, 성희롱, 신고, 여성가족부, 보호), ‘인식 및 소요비용’ 요인(노력, 인식, 힘, 시간, 인터뷰, 돈), ‘상담대상’ 요인(자녀, 부모, 부부), ‘병원’ 요인(환자, 치료, 병원, 의사, 증상), ‘학교’ 요인(학생, 학교, 대학), ‘위기’ 요인(자살, 전화, 전문가), ‘심리적 증상’ 요인(우울

중, 스트레스) 등의 7개 동일 속성 요인으로 축약된다. 또한 가족상담 관련 뉴스 기사에서 도출된 단어들은 ‘긍정’(필요, 도움, 해결, 관심), ‘부정’(어려움, 걱정, 새로움, 부담) 등의 2개 감성 요인으로 축약된다. 가장 주목받는 요인으로 ‘성폭력 이슈’ 요인이 형성된 배경에는 2018년에 나타난 ‘미투(Me, Too)운동’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문제는 주로 여성 영역에서 문제가 제기되어 왔지만(한국성폭력상담소, 2018), 더불어 가족상담의 영역에서도 주요한 상담적 이슈로서 제기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인식 및 소요비용’ 요인과 관련해서 생각해 보면, 가족상담에 대한 인식의 문제가 상당히 중요함을 환기시켜준다. 우리 사회에서 가족상담이 하나의 전문영역으로 자리매김하고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바로 이러한 인식이 바탕이 되어야 함을 반영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또한 가족상담을 받기 위한 노력, 시간, 에너지, 금전 등이 투입되어야 함을 보여주는 결과이기도 하다. 그 외 ‘병원’ 요인과 ‘학교’ 요인은 가족상담이 병원에서의 의료적 처치나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과도 연관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상담대상’ 요인은 자녀, 부모, 부부 등 치료적 개입의 단위나 가족상담의 참여 범위와 관련이 되며, ‘위기’ 요인과 ‘심리적 증상’ 요인은 가족상담을 받아야 할 상황과 원인들과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가족상담 관련 뉴스 기사에서 도출된 단어들은 ‘긍정’과 ‘부정’, 2개의 감성 요인으로 요약될 수 있는데, ‘긍정’은 가족상담을 수용하고 추구하는 태도와 연관되고, ‘부정’은 가족상담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태도와 관련되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축약된 7개 요인군별(성폭력 이슈, 인

식 및 소요비용, 대상, 병원, 학교, 자살, 심리적 증상) 가족상담의 ‘긍정’이나 ‘부정’에 영향력을 미치는 변수들은 각각 다르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성폭력 이슈’ 요인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변수는 ‘가해자’이며, 이외에 ‘성폭력’, ‘보호’, ‘피해’ 순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 그런데, 다른 변수들은 대부분 가족상담의 ‘긍정’에 영향을 미치는 반면, ‘성폭력’은 가족상담의 ‘부정’과 관련이 된다. 이는 신중하게 해석되어야 할 것이지만, 성폭력 경험으로 인한 낙인이나 수치심으로 피해사실이 알려질까 하는 두려움 등으로 인해 상담에 대한 참여를 꺼려한다는 전종설, 심혜선과 김지현(2017)의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가해자’와 관련해서는 성폭력 경험으로 인한 상담을 받는 내담자들 대부분이 상당한 고통과 부담으로 인해 상담 받는 것이 어려울지라도, 가해자가 야기한 스트레스와 고통을 극복하기 위해 상담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하게 된다는 연구결과(전종설 등, 2017)와 가해자 개념의 영향력을 보여주는 본 연구의 결과가 부합됨을 알 수 있다. ‘피해’가 가족상담의 필요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는 대인관계에서의 피해 인식이 정신보건서비스 이용률의 증가와 연관되어 있다는 Cutajar 등(2010)의 연구와 일치된 맥락에서 살펴볼 수 있다. 또한 본 연구 결과, 성폭력 이슈와 관련해서 ‘보호’라는 개념이 가족상담의 필요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때, 가족상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성폭력을 받은 사실 규명이나 확인보다는 심리적 외상 경험과 가해자로부터의 ‘보호’에 집중하여 상담의 기능을 부각한다면 좀 더 효과적인 가족상담서비스를 실현해낼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요컨대, 가족상담서비스가 좀 더 발전

해나가기 위해서는 성폭력 피해 대상에 대한 지원서비스로서 가족상담의 역할 비중을 좀 더 확대시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인식 및 소요비용’ 요인에서는 ‘인식’, ‘노력’, ‘힘’, ‘돈’, ‘시간’의 변수 순으로 가족상담의 긍정적 수용에 영향력을 미친다. 그 중 가족상담의 ‘긍정’에 가장 영향력이 큰 변수는 ‘인식’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상담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상담을 받을 의도가 높아진다는 기존의 연구(김지숙, 2016)를 지지한다고 볼 수 있다. ‘노력’은 가족상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반영하는 것으로, 이와 같이 ‘노력’이 가족상담의 필요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전문적 도움을 추구하는 행동이 상담을 받을 의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김우림과 김창대(2019)의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힘’과 관련해서는 상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에너지나 내담자가 가진 자원을 활용하는 것과 연관시켜 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힘’이라는 개념이 가족상담의 필요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회적 지지망을 잘 활용할수록 전문적 도움을 추구하려는 태도 수준이 높아진다는 김주미와 유성경(2002)의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돈’은 상담과정에 지불하는 비용을 인식하는 것이 가족상담의 ‘긍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상담과정에서 상담을 받을 의도와 지불의사액은 정적인 상관관계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김종학과 최보영(2018)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시간’이 가족상담의 긍정적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시간이 많을수록 상담을 필요로 하게 되고 상담에 참여한다는 선행연구(안종화, 2016)의 결과를 지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인

식 및 소요비용’ 요인에서의 도출 결과는 기본적으로 가족상담을 신청하고자 할 때, 내담자가 투여해야할 요소들로 내담자 쪽에서의 가족상담에 대한 접근성에 영향을 미칠 변수들이 무엇인지를 시사한다. 그러므로 앞으로의 가족상담의 접근성을 높이려면 이러한 ‘인식 및 소요비용’으로 요약되는 ‘노력’, ‘인식’, ‘힘’, ‘시간’, ‘돈’ 등의 변수들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병원’ 요인에서는 ‘의사’, ‘치료’, ‘증상’ 순으로 가족상담의 긍정에 영향을 미친다. 이 요인과 관련 변수들은 가족상담이 심리치료적 범주에 속하고 또한 정신과적 증상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전문가가 의사이기 때문에 부각되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는 정신과 진료를 받으면서 약물치료를 받는 동시에 가족상담이나 커플상담 등의 심리치료를 병행하는 경우도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므로(Sexton & Lebow, 2016), 이러한 연구 결과가 도출된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상담대상’ 요인에서는 ‘부모’, ‘자녀’ 순으로 가족상담의 긍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 우리 사회에서의 가족상담에 대한 요구가 부모-자녀관계 문제 중심으로 더 많이 제기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근래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부부문제에 대한 상담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지만(한국건강가정진흥원, 2017, 2018), 학교, 병원, 사회복지관 등 가족상담이 시행되는 다양한 현장을 고려해 볼 때, 부모-자녀 관계 상담의 비중이 상당히 클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 볼 수 있는 한 연구(노희순, 2013)에서는 부모가 상담에 대한 기대이득이 높을 경우 도움추구 태도가 높아진다는 연구결과도 제시된 바 있다.

‘학교’ 요인에서는 ‘학생’, ‘학교’ 순으로 가족상담의 긍정에 영향을 미치며, 영향력이 더 큰 변인은 ‘학생’이다. 이는 학교와 관련되는 가족상담의 대상이 학생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위기’ 요인에서는 ‘전문가’, ‘전화’ 순으로 가족상담 필요에 영향을 미친다. 이와 관련하여, Gould, Kalafat, HarrisMunfakh과 Kleinman (2007)의 연구는 시사점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의 연구에서는 미국에서 운영되는 8개의 센터를 대상으로 위기상담전화의 효율성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였는데, 그 결과 자살사고를 호소하는 내담자에 대한 전문가의 전화위기상담이 상담회기 지속 및 상담 필요 인식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화위기상담에서 다양한 문제가 다루어질 수 있으나, 내담자들의 긴급한 문제들 중 상당 부분이 가족의 문제와도 연루될 가능성을 고려해 볼 때, 전문가에 의한 가족상담, 그리고 ‘전화’를 통한 핫라인(hot-line) 가족상담의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증대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여성가족부와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 운영하는 가족상담전화(1644-6621)가 구축되어 있는데, 특별히 자살과 관련된 이러한 위기상담은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영역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심리적 증상’ 요인에서는 ‘우울증’, ‘스트레스’ 순으로 가족상담의 긍정에 영향을 미치며, 이 중 영향력이 더 큰 변수는 ‘우울증’이다. ‘우울증’은 특히 모든 변수들 중 가족상담의 긍정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과 스트레스는 현대인의 대표적 심리적 증상(권석만, 2016)이며, 주요우울장애와 만성스트레스장애는 한국인의 정신건강을 논할 때 주목해야 할 심리적 질환

으로 등장한다(엄태완, 2018). 심리적 불편감이 전문적 도움 추구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Rickwood & Braithwaite, 1994)의 결과와 더불어, 우울증이 가족 맥락과 연관성이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게 되면, 본 연구의 결과는 주목할 만하며, 따라서 우리 사회의 가족상담에서도 이를 다룰 전문적 치료프로그램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전체적으로, 가족상담의 긍정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변수들을 살펴보면, ‘우울증’, ‘의사’, ‘인식’, ‘치료’, ‘전문가’ 순이다. 이러한 변수들을 가족상담의 긍정과 관련시킨 논의는 위에서 구체적으로 전개하였지만, 정책과정에서 가족상담서비스를 구상하거나 현장에서 이를 구현하려고 할 때, 이 변수들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지녀야 할 키워드로 생각되는 바이다.

본 연구의 한계 및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가족상담에 대한 뉴스 기사들을 전체 집단으로 분석하였기 때문에 이를 개인에게 적용하였을 경우 ‘생태학적 오류(ecological fallacy)’가 발생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해석함에 있어 가족상담에 대한 개인의 인식이 아닌 언론매체에서 다루어진 전반적인 사회의 인식이나 여론으로 대입하여 연구결과를 해석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해당 연구는 자료의 수집을 1년으로 제한하여 가족상담에 대한 현재 우리 사회의 인식과 여론을 살펴보았지만, 후속연구에서 연구문제의 범위를 넓혀 가족상담 인식과 여론의 변화과정을 알아보고자 할 때는 기간을 보다 확대하여 자료수집을 한 후 기간별 비교 분석을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수집 자료의 정확성과

언론의 공정한 인식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하였지만, 언론의 경우 시사적인 문제에 대하여 언론 나름대로의 프레임을 가지고 정치사회적 시각과 편향에 따라 기사 선정에서 선별적 경향성을 지닐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가족상담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이나 여론에 실질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광범위한 데이터의 정제가 가능하다면 블로그나 카페 같은 웹문서와 SNS 자료를 수집하여 가족상담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나 여론을 알아보는 연구도 진행할 만하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제시할 수 있다.

첫째, 본 연구는 가족상담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여론에 접근하는 데 있어, 빅데이터 분석이라는 방법적 특성을 활용하여 기존의 설문이나 사례분석 등을 토대로 한 연구들을 보완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기존의 연구들은 대부분 소규모의 특정한 대상을 중심으로 조사를 수행하였지만, 본 연구는 빅데이터 분석이라는 장점을 활용하여 보다 대규모의 차원에서 자료 분석을 실시함으로써 기초적인 수준에서나마 우리 사회의 가족상담에 대한 큰 그림을 살펴보는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본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소셜 네트워크 분석의 하위 기법인 텍스트 마이닝과 오피니언 마이닝을 도입하여 가족상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나 여론을 파악하기 위한 의미구조 분석이나 감성 요인 분석을 행함으로써 새로운 방법론의 도입, 혹은 분석기법의 다양화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이러한 분석기법의 적용은 국내·외적으로 현재 가족치료가 지향하는 근거기반실천(evidence based practice)의 방향 하에서 연구와 임상과의 연계성을 이루고

자 하는 작업의 일환으로서도 그 의미를 갖는다고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기정, 이무영, 강복정 (2011). 다문화가족상담모델 개발을 위한 탐색적 연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16(3), 225-245.
- 구경수, 최연실 (2020). 텍스트 마이닝과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한국 가족치료 연구경향 분석: 한국가족치료학회 학술지(1993-2019년)를 중심으로. *가족과 가족치료*, 28(1), 85-110.
- 권석만 (2016). *우울증: 침체와 절망의 늪*. 서울: 학지사.
- 권예진, 차명호 (2017).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상담학 지적 구조 분석: 「상담학연구」 학회지 게재논문(창간년도-2016). *상담학연구*, 18(6), 159-177.
- 김보경, 김미경 (2015). 빅데이터를 활용한 템플스테이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블로그와 트위터를 중심으로. *관광학연구*, 39(5), 25-40.
- 김성천, 박지영 (2012). 사회복지현장에 기반한 가족중심사례관리 실천 모색: 현장 사례 분석 중심으로. *사례관리연구*, 3(1), 39-64.
- 김용학, 김영진 (2016). *사회 연결망 분석(4판)*. 서울: 박영사.
- 김우림, 김창대 (2019). 상담 서비스 이용 의사 결정 과정: 원형-의향 모형을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20(1), 21-37.
- 김종학, 최보영 (2018). 대학상담서비스의 경제적 가치 추정 및 영향요인 탐색. *상담및심리치료*, 30(3), 663-687.
- 김주미, 유성경 (2002). 전문적 도움 추구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문화적 요인. *상담및심리치료*, 14(4), 991-1002.
- 김준현 (2015). 네트워크 텍스트 분석 결과 해석에 관한 소고: 행정학 분야 연구를 중

- 심으로. 인문사회과학연구, 16(4), 247-280.
- 김지숙 (2016). 상담에 대한 태도와 주관적 규범이 상담 추구 의도에 미치는 영향: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태현, 김순옥, 임춘희, 조은숙(2000). 가족상담서비스의 현황과 정책적 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5(1), 161-186.
- 김현수, 최연실 (2012). 결혼이주여성의 가족상담 필요성 인식 관련 요인의 탐색.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7(3), 235-356.
- 노희순 (2013). 부모가 지각한 아동문제와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와 관계에서 사회낙인과 상담에 대한 기대이득의 매개역할: 거제지역을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14(6), 3769-3784.
- 박대민 (2013). 뉴스 기사의 빅데이터 분석 방법으로서 뉴스정보원연결망분석. 한국언론학보, 57(6), 234-262.
- 박미영 (2007). 가족상담서비스의 전문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인천광역시 사회복지관 중심으로. 서울신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상훈 (2018). 빅데이터 감성정보 추출을 통한 도심부 활성화 요인 분석 연구: 서울의 도심부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선주 (2017). SW 교육 뉴스테이터의 감성분석. 정보교육학회논문지, 21(1), 89-96.
- 박인영 (2007). 포털미디어와 신문사닷컴의 뉴스비교 연구: 뉴스속성 차이와 시점별 변화 비교를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반현, 최원석, 신성혜 (2004). 뉴스의 속성과 2차 의제설정 효과 연구: 위도 핵 폐기장 보도를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보, 5, 65-102.
- 서지은, 최현미 (2012). 결혼이주여성의 가족상담서비스 이용결정 요인 분석. 사회과학연구, 28(3), 23-43.
- 송경재 (2006). 포털의 의제 설정 과정에 관한 연구: 네이버, 네이트, 다음 뉴스 서비스를 중심으로. 사회이론, 29, 178-210.
- 송성자 (1997). 집단주의와 개인주의 문화 비교와 한국 가족치료 접근 전략. 한국가족치료학회지, 5(1), 1-26.
- 송태민, 송주영 (2015). 빅데이터 연구 한 권으로 끝내기. 서울: 한나래출판사.
- 신세인, 이준기 (2015). 사범대학 학생들의 진로상담 네트워크 분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5(9), 487-508.
- 안석모 (2014). 소셜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한 온라인 쇼핑몰 평가방법론. 경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연주 (2007). 농촌거주 기혼남녀의 가족상담 요구와 관련변인. 상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종화 (2016). 사례를 통해서 본 방문 가족상담의 필요성과 그 실천적 제언. 가족과상담, 6(1), 87-107.
- 엄태완(2018). 정신건강사회복지론. 서울: 학지사.
- 오현승, 이동훈 (2018).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한 PTSD(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연구 동향 탐색. 재활심리연구, 25(4), 823-838.
- 윤한중 (2016). 한국어 트위터 데이터의 감성 분석 알고리즘 구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득환, 강형구, 김수현 (2013). 빅데이터에 나타난 감성 분석. 한국금용공학회지, 12(2), 79-96.
- 이영분, 김유순, 신영화, 최선령, 최현미 (2015). 사례로 배우는 가족상담과 가족치료. 서울: 학지사.
- 이현정, 김장희 (2016). SNA 기법을 활용한 웹 기반 상담시스템 연구 동향. 상담학연구, 17(5), 133-157.
- 전영주, 환경란, 양무희, 배덕경, 송정숙, 이복숙, 정수빈, 염은선 (2016). 가족상담 개념과 실제. 서울: 신정.
- 전종설, 심혜선, 김지현 (2017). 성폭력 피해 여성의 지원서비스 이용 경험 연구: 성폭력 상담소를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22(2), 273-303.
- 정수정, 김소은, 정익중 (2018). 트위터와 뉴스 기사 분석을 통해 본 계모에 대한 사회적

- 인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8(7), 665-678.
- 정지선 (2011). 신(新)가치창출 엔진, 빅데이터의 새로운 가능성과 대응 전략. 서울: 한국정보진흥원.
- 정지영, 박정윤, 고선강, 이희운 (2015). 위기가족지원 서비스 운영 실태에 관한 연구: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가족역량강화사업을 중심으로.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9(3), 101-119.
- 정혜정 (2015). 가족의 위기 대처를 위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가족상담 서비스 강화방안. 가족과가족치료, 23(3), 421-449.
- 조남옥, 조규락 (2017).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상담학연구』의 연구동향과 지식구조 탐색. 상담학연구, 18(2), 1-19.
- 조희금, 박미석 (2004). 건강가정기본법의 이념과 체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5), 331-344.
- 최석재, 이재웅, 권오병 (2016). 온라인 뉴스 제목 분석을 통한 특정 장소 이벤트 성과 예측을 위한 형태소 분석 방법. 한국전자거래학회지, 21(1), 15-32.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2017). 연간사업실적보고서. 서울: 한국건강가정진흥원.
- _____ (2018). 2018년 상반기 가족정책서비스 수행기관 실적 리포트. <http://www.kihf.or.kr/lay1/S1T158C159/contents.do>
- 한국성폭력상담소 (2018). 2018년 상담통계. <http://www.sisters.or.kr/load.asp?subPage=210>
- 홍두표, 정하림, 박상민, 한음, 김홍희, 윤일수 (2017). SNS 감성분석을 이용한 정보 추출 방법론에 관한 연구. 한국ITS학회논문지, 16(6), 141-155.
- Cutajar, M. C., Mullen, P. E., Ogloff, J. R., Thomas, S. D., Wells, D. L., & Spataro, J. (2010). Psychopathology in a large cohort of sexually abused children followed up to 43 years. *Child Abuse & Neglect*, 34(11), 813-822.
- Gartner (2018). *Big data*. Retrieved May 27, 2019, Retrieved from <https://www.gartner.com/it-glossary/big-data>
- Gould, M. S., Kalafat, J., HarrisMunfakh, J. L., & Kleinman, M. (2007). An evaluation of crisis hotline outcomes part 2: Suicidal callers. *Suicide and Life-Threatening Behavior*, 37(3), 338-352.
- Rickwood, D. J., & Braithwaite, V. A. (1994). Social psychological factors affecting help seeking for emotional problems. *Social Science and Medicine*, 39, 563-572.
- Sexton, T. L., & Lebow, J.(2016). *Handbook of family therapy*. New York, NY: Routledge.

☐ 논문접수일 : 2020년 04월 30일
☐ 심사시작일 : 2020년 05월 23일
☐ 게재확정일 : 2020년 12월 14일

Social Network Analysis of News Articles on Family Counseling

Woo-Jung Choi

Younshil Choi

(Department of Family Welfare, Sangmyung University)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social awareness surrounding family counseling by social network analysis through methods of big data analysis. **Methods:** News articles that were searched under the keyword “family counseling” over a period of one year were collected from 17 media networks, with which social network analysis was conducted. The data analysis of this study utilized text mining and opinion mining analyzer methods. **Results:** First, keywords related to “counseling service”, “child”, “recognition”, and “problem” were found to be at the top frequency, while the associations of keywords showed that the words “recognition”, “problem”, “child”, “story”, “individual”, “social”, “women”, and “parent” were highly influential. Second, the same attribute factors of the major words were “sexual violence issue factor”, “recognition and cost factor”, “family member factor”, “hospital factor”, “school factor”, “crisis factor”, and “psychological symptom factor”. Third, within each factor group, perpetrators, perceptions, doctors, experts, students, and depression showed the greatest impact; and the greater their influence, the more statistically significant the perception of the need for family counseling was found to be. **Conclusions:** This study contributes to the field of family counseling as a meaningful exploratory study of the factors for promoting family counseling by supplementing research and case analysis results based on existing surveys.

Keywords: *family counseling, news articles, social network analysis, big data analysis*